

‘민주화 성지’에서 쏘아올린 ‘평화의 울림’...역대 최고 대회로

광주세계양궁선수권 조직위·광주여대, 연계협력 강화 업무협약

경기 운영 보조·현장 실무 등 전문인력 지원, 학생 참여 확대 대학·지역·조직위가 함께하는 참여형 국제스포츠 축제 실현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광주여대와 조직위원회가 힘을 모은다.

광주여대와 조직위는 지난 10일 광주여대에서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와 지역 대학과의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9월5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9월22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지는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체를 확대하고 광주여대가 보유한 전문인력과 우수한 학생 자원을 대회 운영 전반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광주여대는 협약에 따라 ▲경기운영 보조 인력 및 시상요원 지원 ▲선수 대상 물리치료 등 현장 실무지원 ▲페이스페인팅 및 관중 응원분위기 조성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용형 인력을 제공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진로 탐색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대회 운영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여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대학이



이선재 광주여대 총장과 이연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 사무처장 등이 10일 광주여대에서 상호 업무협약을 맺고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및 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고 있다.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 제공>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성과 실천성을 강화하는 계기”라며 “양궁 특화 대학으로서 보유한 인프라와 학생 역량을 세계대회 현장에 직접 접목시킬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기보배와 안산처럼 세계 무대에서 활약한 동문들이 대회 홍보대사

로 함께하는 점은 학교의 명예일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큰 자부심과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직위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가 대학·지역사회·조직위가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

형 국제대회 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직위는 향후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대회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지속가능한 스포츠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희중기자

KIA ‘내야 듀오’ 김도영·박찬호 올해도 올스타 베스트12 ‘청신호’

‘3루수·유격수’ 팬투표 중간 집계 1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간판스타’ 김도영과 리드오피 박찬호가 2년 연속 올스타전 베스트12 선정에 한 발 더 다가갔다.

두 선수 모두 각 포지션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기록하며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KBO가 최근 공개한 2025 신한 SOL뱅크 KB O 올스타전 ‘베스트12’ 팬 투표 1차 중간 집계 따르면 ‘나눔 올스타’에 속한 KIA는 3루수와 유격수 부문에서 나란히 1위를 기록 중이다.

먼저 김도영은 3루수 부문에서 48만2천172표를 얻어, 2위 송성문(키움, 31만5천614표)을 큰 격차로 제치고,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비록, 햄스트링 부상으로 올 시즌 27경기 출전에 그쳤지만 타율 0.330(100타수 33안타), 7홈

런, 26타점을 기록하며 팀 내 핵심 선수를 넘어 리그 전체의 흥행을 견인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유격수 부문 1위에 오른 박찬호도 40만2천800표를 기록하며, 2위 김주원(NC, 34만2천823표)을 약 6만표 차이로 따돌렸다.

올 시즌 공격력이 지난해보다 다소 주춤하지만, 뛰어난 수비와 활기 넘치는 플레이로 KIA 내야를 든든히 지켰다. 여기에 재치있는 주루 플레이까지 더해 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두 선수 모두 지난해 생애 첫 올스타 베스트12에 선정된 바 있다.

올해도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2년 연속 올스타 무대에 오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번 올스타전 ‘베스트12’ 팬 투표는 오는 22일 오후 2시까지 계속된다. 2차 중간 집계 결과는 16일에 발표되며, 팬 투표(70%)와 선수단 투표(30%)를 합산한 최종 베스트12 명단은 23일



김도영 박찬호 <KIA 타이거즈 제공>

에 공개될 예정이다. 김도영과 박찬호가 최종 베스트12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남은 팬 투표 기간 동안 타이거즈 팬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한편, 한화의 김서현은 합산 60만4천511표를 받으며 1차 중간 집계에서 전체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전체 137만2천12표 중 약 50.6%의 득표율이다. 데뷔 후 첫 올스타 베스트12 후보에 오른 그는 첫 올스타전 출전도 함께 노린다. /주홍철기자



지난해 광주에서 열린 달빛동맹 스포츠교류대회 환영식에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스포츠로 더 돈독해진 달빛동맹’

광주시체육회, 달빛동맹 스포츠교류배구 등 4개 종목 120여명 참가

광주시체육회와 대구시체육회가 공동 주최하는 ‘광주-대구 달빛동맹 스포츠교류대회’가 12일부터 이틀간 대구시 일원에서 열린다.

‘달빛동맹 스포츠교류대회’는 광주와 대구가 2013년 서로의 벽을 허물고 힘을 합쳐 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의미에서 시작했다. ‘달빛동맹 공동협력 협약’을 토대로 격년제로 상호 초청이 이어지고 있는 영호남 화합의 대표적인 스포츠 교류행사다.

광주시체육회는 이번 대회에 배구, 검도, 족구, 볼링 등 4개 종목 120여 명의 선수 및 동호인이 참가해 지역간 화합과 우정을 다진다.

광주선수단은 12일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에 도착해 환영식 및 문화탐방을 시작으로 환영 만찬 행사에 참석해 13일에는 대구시 일원 종목별 경기장에서 종목별 선의의 경쟁을 치른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매년 이어지고 있는 광주-대구 달빛동맹 스포츠교류대회가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교류사업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며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리는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대구 체육인들이 적극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상호 교류를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목포대 육상부·탁구부 창단...전남 체육 웅비의 나라 퍼다

지역 체육인재 육성 추후적 역할 ‘초·중·고·대·실업’ 선순환 기대

목포대가 육상부와 탁구부를 공식 창단했다. 전남도체육회와 목포대는 11일 오후 2시 목포대 70주년 기념관에서 육상부와 탁구부 창단식을 열고 전남 엘리트 체육 인재 육성에 나섰다.

그동안 전남 체육은 학생선수 인구조사와 수도권 집중 등의 영향으로 대학부 엘리트 팀 구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중·고교와 실업팀간 연계 육성체계에서 ‘대학부’의 부족이 전남체육의 약점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전남도체육회는 전략 종목을 중심으로 한 대학부 육성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목포대에 종목별 운동부 창단을 요청했고, 육상과 탁구라는 두 종목에서 전남 최초 국립대 운동부 창단이라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창단을 통해 전남은 초·중·고·대학·실업팀으로 이어지는 선수 연계육성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2025 운동부 창단운영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3년간 총 2억5천500만원의 국고 지원도 확보했다.

육상부는 박희철 체육학과 교수가 감독, 국가대표 출신 이승호 코치가 지도자로 함께하



11일 열린 목포대 육상부·탁구부 창단식에서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육상부 및 탁구부 감독·선수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며, 16명의 선수단(남 13, 여 3명)으로 구성됐다. 육상 선수 중에는 제10회 전국체육대회 1.600mR 1위의 김기현,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세단뛰기 은메달리스트 김나영 등도 포함됐다.

탁구부는 이승재 체육학과 교수가 감독, 김성민 코치가 지도자를 맡으며 총 5명(남 3, 여 2명)으로 구성됐다.

제43회 한국대학탁구연맹전 단체전 8강 주역 안치현, 박준서, 정의진(이상 남)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육상부와 탁구부 창단은 단순한 운동부 신설을 넘어, 지역의 유망

한 체육 인재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대학의 책임이자 약속”이라며 “목포대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전남 체육의 중추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남도체육회는 오랜 기간 대학부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써왔고, 이번 육상부 탁구부 창단은 그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중 고교와 실업팀간 유기적인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희중기자

장애를 넘어 하나되는 어울림 한마당 축제

‘제4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내일 강원 흥천서 개막

광주 50여명·전남 80여명 참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체육 축제인 ‘제4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이 13일 오후 4시 강원 흥천종합체육관에서 개최식을 시작으로 15일까지 열전에 돌입한다.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전국 단위 생활체육 통합 대회로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체육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수 1천97명, 임원 및 관계자 344명 등 총 1천411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 광주선수단은 볼링, 배드민턴, 좌식배구, 파크골프, 낚시 등 총 5개 종목에 50여명이 참가한다.

지난 제3회 대회 금2 은2 동2개 등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한 광주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는 낚시 종목 ‘단체전(4인제)’ 등에서 좋은 성적이

기대되고 있다. 한상득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이번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통합형 생활체육 축제로, 참가자들에게 건강과 자신감을 선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광주 선수단이 지역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전남은 파크골프, 볼링, 낚시, 휠체어러비, 좌식배구, 배드민턴, 파라트라이애슬론, 조정(실내) 등 8개 종목에 선수 50명, 경기임원 및 보호자 7명, 본부임원 20명 등 총 88명이 참가한다.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이번 대회는 단순한 경기 참가를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뛰고 소통하며 상호 이해를 높이는 의미 있는 축제의 장”이라며 “전남 선수단이 안전하고 당당하게 대회를 마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